

“두고 볼 수 없다.

학교측의 독단적인 半(반쪽자리) 성폭력 학칙제정!

대학 = 성폭력 박물관?!!

하지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.

이제 우리의 몸을 둘러싼 폭력의 그물망을 단호히 끊어버리고

우리들의 힘으로

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제정합시다!

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말하는 것

그것이 바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

성폭력 학칙제정의 첫걸음입니다.

학생 · 교수 · 교직원이
동수로 참여하는
성폭력 학칙제정위원회를
건설하라!

